

# 환경과 제주문화

— 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 서설 —

이 기 육\*

## 目 次

- I. 서 언
- II. 환경결정론적 접근의 재고
- III.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
- IV. 적응양식으로서의 제주문화
- V. 결론 : 제주문화의 정체

## I. 서 언

근래들어 제주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분야도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의 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 부문의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로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므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도 민속학적 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70년대부터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학자들이 대거 가세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나 접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회가 결성되어 이들 연구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제주도 연구는 오늘날

---

\*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제주문화의 연구중에서도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흥미를 갖고 다루어 온 주제이다(김항원 1989, 유철인 1986, 이기욱 1989, 1990). 이는 제주도 자체의 지리상의 위치와 관련해서 제주문화의 형성에 미친 주변국가들의 문화적 영향이나<sup>2)</sup> 지역내에서의 독자적인 문화요소들의 형성과정을 고려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의 문제는 우선 한반도 문화 전반에 걸쳐 논의되는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의 귀속여부의 논제나 제주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를테면 북으로 한반도,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그리고 남으로는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태평양의 도서국들과의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의 문제와 결합하여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는 듯이 보인다. 이들 주변국들은 제주도와는 원거리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해류나 태풍의 영향으로 혹은 국가간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류의 결과로 제주문화의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가설이 널리 신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체성의 논제와 관련된 보다 중요한 사항은 한국문화내에서의 제주도 문화의 위치설정의 문제이다. 가령 소수의 견해이긴하지만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국가체제내에서 중심부인 서울과 제주지역이라는 일개 지방의 관계를 마치 이 민족들로 형성된 국가들속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상이한 국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혼동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주도를 중심으로 육지부와 제주도라는 이분적 카테고리 설정하고 이 두 지역간의 관계를 마치 제3세계의 상황과 연관시키거나 내부식민주의의 개념이나 문화적 제국주의의 개념(천길언 1985)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주문화의 위상에 관련된 논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제주문화의 정체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1) 이들 연구회들 중 몇몇의 예를 들어 보면 국내의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연구회(1978년에 설립)와 동경에서 구성된 탐라연구회를 들 수 있다. 두 학회는 연구회지를 각각 8집과 4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 좋은 예로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1992년도 9월에 열렸던 세미나의 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였으며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제주문화에 대한 중국이나 일본 육지부의 문화와의 비교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 환경과 제주문화

한다. 이렇게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데에는 제주도 자체의 환경적 특성과 어떤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환경이 독특한 제주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질 수 있는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 많은 섬들 중의 하나로 외부사회와 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제주문화적 특성을 한반도와의 연관관계속에서 고려하는 경우에서나 자체적인 문화형성의 요인과 연관지어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제주도 자체가 지닌 환경의 특성을 문화적 특성과 관련짓고 있음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반도의 대부분의 도서사회가 역사적인 공백기와 단절기를 겪고 있는데 비해 이러한 단절을 경험함이 없이 역사적인 연속성을 유지해온 제주의 경우 문화적 특성의 확실한 근원을 찾는 작업은 수궁할 수 있는 일이다<sup>3)</sup>. 지금까지 제주문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로 환경의 요소와 관련하여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어떤 이론적 틀에 의존함이 없이 다분히 상식적이거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하여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문화해석의 부적절한 이론틀인 결정론적인 설명의 범주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와 문화형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의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인류학의 이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제주문화의 특성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이 갖는 문화형성에의 역할과 그러한 역할의 한

---

3) 이해준(1990)은 서해 도서지역의 문화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들 도서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역사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여 섬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 대부분의 도서에 공도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왜구의 창궐기인 13세기-15세기와 왜란기인 16세기를 뜻하고 있다.

반대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륙금지령을(1629-1830) 내려 섬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지함으로써 자체 방어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대부분의 도서와는 달리 제주도는 역사적 연속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음이 주목된다.

계를 아울러 밝히려고 한다. 제주문화의 원류에 관한 문제들, 이들에면 제주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남방문화적 요소들이나 북방문화적 요소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은 성격상 역사학이나 고고학 혹은 민속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바는 공시적인 접근방식에서 추적 가능한 제주의 전통문화만을 취급하려고 한다. 제주 전통문화란 생계경제하의 문화를 뜻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생계활동이 그대로 유지되던 60년대 이전의 시기를 역시 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문화의 특성으로 지적된 몇가지 문화 요소들 이들에면 핵가족의 유형이나 상속유형, 여성의 역할, 자원이용의 독특한 형태 그리고 각종 의례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전제로 이것들이 갖는 제주환경과의 연관관계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논제를 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 II. 환경 결정론적 접근의 재고

환경이란 광의적인 의미로 볼때 “한 생물 유기체 또는 그 집단의 외부에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한 상복의 1982 : 322).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내에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야함으로, 혹은 환경이 제기하는 제 구속력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타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환경의 구속력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장치로 구속력을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자체를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기도 한다. 그럼으로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에 생물학에서 다루는 환경의 개념의 적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학에서의 환경이란 생물체에 순응을 강요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생물체에게는 도태의 압력이나 종의 변화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환경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인류학적인 제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결정론적 입장과 이러한 설명방식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환경결정론의 한계

## 환경과 제주문화

제주지역의 연구에서 환경이 중요한 설명의 요소로 취급되는 이유로는 우선 제주도가 한반도와 원거리로 격리된 도서지역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간에 모든 도서가 그러듯이, 제주지역은 외부지역과의 인간생태계의 공간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단일 지역을 이루고 있어서 지역차체가 인간집단의 연구를 위한 비교의 단위로서 다룰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 주변의 대부분의 도서사회가 역사적인 공백기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주사회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와 문화적 전통을 단절함이 없이 이어올 수 있었다는 부가적인 잇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이기욱 1989).

이러한 제주의 환경이 문화 연구에 지니고 있는 잇점은 연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즉 제주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문화의 양상을 환경적 특성과 관련시켜 인과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결정론적인 개념을 옹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환경결정론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행위가 대체로 자연서식처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로서 서구인들 사이에 이문화(異文化)를 설명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유력한 개념이다. 최초로 적용된 때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며 이후로 많은 사상가들이 즐겨 이 결정론적인 개념을 사용해 왔다. 즉 그리스의 철인 프라토나 아리스토틔은 물론,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중세에는 이븐 칼둔, 계몽 사상가로는 보딘(Jean Bodin), 몽테스큐,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 록크의 인간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 심리적 형태, 그리고 체형까지도 환경의 요인 특히 기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프라토와 아리스토틔은 그리스의 민주정부가 온화한 기후의 혜택속에 자라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몽테스큐도 발전은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Ellen 1982 : 2). 19세기에는 지리학자인 독일의 라첼(Friedrich Ratzel)까지도 역시 이러한 결정론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도 인간의 서식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동물이 서식처에 반응하듯이 인간 사회도 자연환경에 반응하고 있다고 보며 지형과 위치로 구성되는 자연경계가 정치적 모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론적인 주장들은 인간과 환경간의, 또는 문화와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환경의 주도적인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나 유사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정론

적인 접근방식은 기계적이며 단순한 인과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역사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되는 결점을 보이고 있다(Ellen 1982 : 4-5). 환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환경적 차이의 복잡성, 변수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 그리고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사이의 관계 등이다. 다음으로는 이 물리적 환경이라는 변수는 사회 현상과 미시적 생태 수준에서 긴밀한 상호작용하에 있음을 그리고 사회 현상이란 역사적 요인이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사회가 적응해 나가도록하는 어떤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의 적응형태는 다양하고 다양성의 하나 하나는 환경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 다시 말하자면 생산력의 수준에 달려있다(Godelier 1980)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환경속에서도 상이한 행동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위양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턴벌(Turnbull 1966)은 같은 환경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 현격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콩고에 피그미족과 반투족은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으나 그들이 직면한 환경인 숲(forest)을 인지하고 설명하는 표현체계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그미족의 경우는 숲을 호의적이고 관대한 세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면에 반투족은 이것을 적대적인 세계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피그미족은 나무가 베어져 숲이 제거되는 반투족의 환경을 열기가 넘치고 물이 오염되고 질병이 만연하는 위협적인 환경으로 여기는데 반해 반투족은 피그미족이 머무는 숲을 사악한 정령이나 악마들의 거주지로서 적대적이고 냉혹하며 치명적인 세계로 간주한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 대한 두 집단이 갖는 대조적인 표현체계는 환경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두 집단 사이의 숲을 이용하는 상이한 방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피그미족은 수렵 채집을 주생계수단으로 숲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숲이란 생존에 필수적인 동식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태양열을 막아주고 여러 곳에 샘을 마련해 주는 삶의 터전이 된다. 이들은 숲과 친숙해 있으며 숲에서 쉽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잡은 사냥감은 숲이 준 선물로 간주한다. 반면에 반투족은 원예농경민들(horticulturalists)로서 숲을 베어내어 경지를 만들고 여기에 카사바와 곡물을

## 환경과 제주문화

재배한다. 이들의 농장은 숲이 무성해짐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숲은 토양의 비옥도를 쉬 상실케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숲이란 위협적인 존재이며 또 친숙해 있지도 않아서 숲에서는 길을 잃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으로 깊이 모험하려 하지도 않는다. 반투족에게는 숲은 사악한 정령들이나 무시무시하고 적대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거주지가 된다.

이와 같이 환경을 지각하고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두 집단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는 환경자체의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대조적으로 작용하며 상이하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두 집단의 경제체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문화적 특성이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재고할 충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이 지니고 있는 같은 환경을 다르게 이용하는 상이한 경제체계는 이들 집단이 각각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울러 주목될 수 있다.

아무튼 제주문화의 연구에 있어서도 환경이 미친 문화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은 그리 단순하거나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란 누적적인 것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모여지고 변모되어온 그러면서 집단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역사적 사실이며 살린스(Sahlins 1985 : 155)가 지적하는 것처럼 과거에 의한 현재상황의 조작임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

## 2. 결정론의 극복과 비교문화적 시각

지역연구에 있어서 환경을 해석하고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고려하며 문화 해석의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 비교문화적인 시각은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인지하고 또 문화를 설명할 때 빠지기 쉬운 약점을 어느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 문화연구의 함정으로는 우선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민족중심주의 함정이 있다. 이 개념은 타문화와 대비해서 자신의 문화를 접근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문화양상을 합리화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동화를 좌절케하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한 문화내의 집단간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Hunter & Whitten 1976 : 147). 그러므로 이 개념은 자국의 문화를 보는 데

서나 타국의 문화를 보는 데에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하나로 보인다. 특히 집단의 정체를 밝히거나 유대를 강화하려는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의 경향이나 개념인 것이다.

지역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위 자민족중심주의의 경향은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거나 지역민의 정체를 내세우고자 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기 쉬운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주변에 지역감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만큼 지역연구가 하부집단간의 이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문화 연구는 한국 전체 문화와의 연관관계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적 여건들, 이를테면 환경적 특성이나 역사적인 상이성에 입각하여 각 지역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주도 연구도 이러한 현상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 문화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어느 지역에서 보다는 용이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육지부와 동떨어진 도서지역이라는 사실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육지부와 제주지역이라는 이분적 범주의 설정이 가능하여 이 두 지역간의 관계를 제3세계의 상황과 비유(현길언 1976)하고 육지부의 지배체계에 의한 착취와 억압으로 일관되어온 역사를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얼핏보아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족한 것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역사해석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국가체제내에서의 지역사회의 위치와 중심부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한 양민의 착취현상이라는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유독 제주지역만이 예외적인 대우를 받아 왔다는 피해망상적이며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삐뚤어진 애항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농민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는 농민이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조직이며 가족을 거느린 소비 단위일 뿐만 아니라 지배자와는 불평등한 관계속에 있는 사람들”(Popkin 1979 : 5-10)로서 설명되고 있다. 지배자들은 농민의 노동력이나 생산수단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농민의 잉여를 착취하고 있으며 농민의 잉여물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농민 반란을 연구한 Scott(1976)는 중국의 농민들의 입장을 표현한 글을 자신의 책 서두에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농민이 처한 입장을 실감있게 이



해할 수 있다. 즉 농민이란 “코밑까지 물을 채우고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잔물결이 스쳐도 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잔물결을 제거하기에 급급하고 있어서 농민은 어느 지역에서나 소득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재난의 가능성을 극소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임을 의식할 때 우리는 육지부와 제주라는 이분적 카테고리속에서 제주인을 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역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 사회속의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비교연구 뿐만 아니라 인근국가의 지역연구 특히 제주와 유사한 도서사회인 태평양지역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문화는 각각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다른 문화와의 어느정도의 공통점이나 보편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제주지역 문화의 특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타 지역문화들과의 차이나 유사성을 지적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단일한 민족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하부지역간의 문화적 양상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나누어 갖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며 특수성을 설명하는 경우 세심한 비교문화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Ⅲ.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

#### 1. 문화의 개념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행위나 신앙의 유형을 말한다. 그것은 한 사회의 생활양식으로서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념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모두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는 일찌기 타일러가 언급했듯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적인 것이다<sup>4)</sup>. 그래서 문화의 개념속에는 규범, 가치, 가정, 기대, 행위의 계획 등과 주거양식, 음식의 종류, 요리방법, 도구나 설비 등 인간의 집단적 생활양식의 소산

4)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 J Murray.

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학자들에 따라 문화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Ember & Ember 1977 : 23-33). 첫째의 속성은 문화란 개인적 특성을 말하는게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것을 말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을 뜻하는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공통적인 경향을 우리는 문화라 부르고 있다. 둘째 공유된 모든 것을 문화라 할 수 없으며 단지 학습된 것만이 문화로 지칭된다. 이것은 문화란 생물학적인 속성에 의해 지니게 된 인간의 공통된 특성들이 아니라 유년기부터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습득하여 집단성원이 공유한 것임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학습되고 축적된 것이 바로 문화인 것이다. 셋째, 문화는 동태적인 체계(dynamic system)라는 것이다. 즉 문화가 정체적이고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단히 변화하는 동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체계로서의 개념은 한 사회의 문화는 여러 요소들로서 구성되는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언급되어야 할 속성은 바로 문화란 일종의 적응방식이라는 점이다. 문화는 특정 환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환경이 제기하는 문제를 대처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적응기체로서의 문화의 속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바로 인류학내에서도 생태인류학의 분야로서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환경이 제기하는 구속력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행위 유형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해 왔다.

## 2. 생태인류학의 문화이론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결정론적인 접근방법이 인간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설명 방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각도로 시도되어 왔었다. 인류학자들은 한편으로는 현지조사의 경험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의 성과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집단의 행위유형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체계화 시켜왔다. 지금까지의 생태인류학에서의 접근방식은 대체로 환경가능론, 문화생태학, 체계이론 등으로 크게 구

## 환경과 제주문화

분된다. 각각의 접근방식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연구지역이나 주제에 따라 상이한 잇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관련된 문화이론의 상이한 잇점들을 검토하고 복합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제주사회의 환경과 그 문화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모색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주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 1)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

환경결정론의 방식은 단순히 환경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식의 인과론적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앞서 살펴 보았듯이 문화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가 등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견해에는 인간에 있어서의 행동의 유연성, 주위의 사물을 제어하는 능력, 환경과 독립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인간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초기의 반응은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으로 집약된다. 가능론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인간의 행위유형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대신에 제한적인 역할만을 행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보아스(Franz Boas)가 문화적 특수성의 기원을 설명하는데서 그 시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 특수주의로 불리우는 보아스의 견해는 문화특질의 기원이 환경에 있다기 보다는 역사적 전통에 있다는 입장이다(Hardesty 1977: 4). 그는 문화가 인종이나 인간의 지력 그리고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아스는 지금까지 문화형성에 있어서의 환경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차적인 역할로 보았다. 보아스의 견해는 역사적 특수주의의 입장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환경의 축소된 역할을 강조하는 가능론을 확립시키고 환경의 제한적 역할을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통해서 밝힌 것은 크뢰버였다. 크뢰버(Kroeber 1939)는 북미주의 옥수수경작의 지리적 분포조사에서 경작지의 범위가 기후의 요인, 즉 성장기 동안의 강우량과 직물에 치명적인 서리의 유무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웨델(Wedel 1961)도 대평원에서의 농경의 지리적 분포조사에서, 농경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강우의 기능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의 사례들은 모두 가능론의 이론적 틀에 입각한 연구의 예들이다. 후에 크뢰버는 스스로 가능론의 한계를 인식하

고 문화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지극히 복잡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상황이나 지역에서 상이한 자연적 요인이 서로 다른 강도로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크뢰버에 의해 제기된 문화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문화연구에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물학에서의 생태학은 회랍어로 집이나 생활의 장을 의미하는 oikos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생활의 장에서의 생물의 연구를 지칭하며, 보통 생물 또는 생물군과 그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하자면 생물과 그 환경의 상호작용의 과학이라고 정의된다(Odum 1963). 그래서 생태학의 가설은 생물과 비생물적인 물리적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체계를 이루고 에너지의 유통에 의해 영양구조, 생물의 다양성,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생태학적인 계를 생태계라고 한다. 이러한 생물학에서의 연구의 성과는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파악하던 사회과학의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인류학은 생물학의 성과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들의 환경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으며 유기체의 행태나 인간의 행위의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어느 한 부분의 일방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거부할 수 있었다. 생물생태학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인류학에서는 생태인류학의 분야가 환경의 요소를 중시하면서 인간의 행위의 유형이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태인류학의 방법은 환경이 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이나 제한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체와 물리적 환경, 인간과 환경, 문화와 환경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주로 다루게 된다. 생태인류학의 하위분야로는 대체적으로 체계생태학(systems ecology),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으로 대별된다(Hardesty 1977 : 8-16).

## 2) 문화생태학의 접근방식

문화생태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은 일찌기 1930년대에 스투어드에 의해 인류학에 생태학적 관점이 소개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그들의 연구에 적용하면서 유력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화생태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회가 그것의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럼으로 문화생태학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적응과정이 내적인 사회변화나 혹은 진화적인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Steward 1974). 원래 고고학과 민족지를 배경으로 한 스튜어드의 연구는 특수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는 다선 진화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비진화론적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의 방법론(Steward 1955)은 첫째 환경과 기술과의 상호관계, 둘째 행동유형과 기술의 상호관계, 셋째 그러한 행동유형이 문화의 다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그는 문화의 특정한 영역이 다른 영역들 보다 좀 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특정한 영역을 문화의 핵심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오직 이러한 문화핵심에서만 생태학적 분석이 비교문화적인 유사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핵심은 사회의 경제적인 영역, 즉 생계활동이나 경제 제도들과 밀접히 연관된 특징들로 구성된다. 스튜어드의 연구는 인간의 적응과정에 주목하며 유사한 환경에서 현재의 문화적 특성이나 기원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문화의 핵심특질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것과 연관된 문화의 제 요소들의 기능적 관계가 어떻게 부계제 군단의 특수한 사회조직과 연관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보아스의 역사적 특수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스튜어드의 문화생태학은 어떠한 환경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화의 일반원칙을 도출해 내기 보다는 상이한 지역을 각각 특징짓는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생태학 혹은 사회생태학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문화생태학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한계와 가능성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생태학에서의 문화란 인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의 역동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간이 그의 환경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적응 메카니즘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문화생태학의 시도는 이러한 문화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그것은 오로지 특정문화나 특정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체계인 것이다. 이렇게 윤곽이 잡혀진 문화생태학의 이론과 방법은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문화적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기여 못지않게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스튜어드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몇가지로 이루어져 왔다(전경수 1986).

첫째 그의 연구는 문화특질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접근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스튜어드는 문화와 환경의 특질들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려했고 또한 그러한 똑 같은 관계가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보여주려 했다. 여기에서는 환경과 문화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가 검토됨으로 환경적 특질이 필연적인 결과로서 문화적 특질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없지만 표본추출의 실수로 그릇된 상호관계의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통계적인 의미에서조차도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는 인과적인 현상이 아님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앞서의 지적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문화생태학에서는 마치 생계기술만이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후의 연구들은 의례나 이데올로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밖에도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질병의 발생이나 인간집단 자체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고려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sup>5)</sup>.

이처럼 스튜어드의 접근방식과 이에 대한 비판은 생태인류학의 분야에 뒤이어 이루어진 세밀한 조사와 이론적 정교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스튜어드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생태학의 지평을 확대해낸 사람중의 하나가 바로 베네트(John Bennett)이다.

베네트(Bennett 1976)는 스튜어드류의 문화생태학의 방식에 기어츠(Geertz 1963)나 라파포트(Rappaport 1968) 등에 의해 시도된 체계이론의 방법과 환경가능론의 입장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문화생태학을 인간생태학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이 소규모의 고립된 사회나, 기술적으로 단순한 사회의 연구에 적용해 왔던 이론적 틀을 현대의 고도의 기술을 지닌 복합적인 산업사회까지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의 인간생태학을 그는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베네트는 문화생태학의 접근방식과 체계이론 사이의 차이가 인위적이지 근본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이 두 접근방식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연구중인 집단의 규모와 복잡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원시적 기술을 지니고 있는 단순한 소규모 사회에서는 체계이론이 보다

5) 이상 문화생태학의 부분은 전경수(1986) 교수의 글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으며  
 로 상세한 설명을 원할 경우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 환경과 제주문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많은 결과가 문화적 전통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크고 복잡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에서는 제도나 기술이 인간과 환경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현대사회의 연구는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제도나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범주의 연구에는 문화생태학의 접근방식이 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동안 무시되어 왔던 가능론의 접근방식까지도 수렴함으로써 그는 이른바 스튜어드의 "특수한 환경과 특수한 문화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넘어서서 이른바 보편적인 인간 생태학을 시도하고 있다.

베네트(Bennett 1976 : 35-36)는 생물학자인 마가래프(Ramon Margalef)의 생태계의 개념에 입각하여 인간도 지구위에 움직이는 일종의 동물임을 그리고 인간은 타생물체와 같이 환경적 모체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생태학에는 생물생태학에서와는 다른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즉 인간의 행위에는 타생물체의 행위에서와는 달리 자원을 어떤 목적과 조화시키는 유목적적인 행동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그는 인간이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인지적 토대위에서 행동하고 상호작용할지라도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생태학적이라는 또다른 인식에 이르고 있다.

베네트의 중심적인 개념은 사회자연체계(Bennett 1976 : 22)의 개념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데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생태계를 생물체와 작용하는 비생물적 환경의 총체로만 보고 인간의 사회체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는 생태계의 개념을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사회자연체계는 환경, 자원, 기술, 사회조직,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다섯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Bennett 1976 : 17-32).

베네트의 사회자연체계의 구성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환경은 동식물군을 비롯하여 생물유기체와 토양, 물, 공기,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체계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띄게 되는 일종의 변수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환경은 자원, 자극, 구속력, 정보의 부분들, 불확실성의 근원 등으

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로 자원은 환경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로서 인간의 에너지원이나 물자로 이용될 수 있는 동식물군을 비롯한 무생물적 부분의 모든 것을 뜻한다. 셋째로 기술의 요소는 사회조직과 같이 인간의 유목적적인 행위의 소산으로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생물의 환경을 다루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사회조직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사회자연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사회조직과 기술은 긴밀한 상호작용하에 있다. 특히 기술은 사회의 구성원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종류의 물자나 용역의 공급을 가능케 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인구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체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사회조직은 인간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선택된 사회적 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행동을 위한 협정 뿐만 아니라 인구, 분화, 상호작용, 권력, 의례 등의 제도적인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이념은 가치, 욕구들로서 기술과 사회조직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기술이나 조직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이다. 베네트는 이것을 억압력(presses)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충동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환경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강제, 설득, 조종 등의 방법으로 생태계를 점검하고 기술이나 사회조직을 통제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과 인간 사이에 복잡한 상호관계의 양상을 스튜어드와 베네트의 견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스튜어드에 의해 시도된 문화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연구는 베네트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사회자연체계의 연구로 대체되고 있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와 자연을 망라하는 사회자연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세심한 상호작용이 인식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문화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환경이 그 밖의 요소들, 기술, 사회제도 혹은 조직, 이념 등의 역할에 비해, 문화형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제주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생물학에서의 체계의 개념이 아니라 베네트의 사회자연체계의 개념을 인식하고 이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환경, 자원, 기술, 제도, 이념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의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중요성이 강조될 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3) 체계생태학의 접근방식

문화생태학의 주된 문제는 어떤 사회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적응이 어떻게 내적인 사회변화 혹은 진화적인 변화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계생태학의 견해는 이러한 문화생태학의 접근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만족스러운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시도된 것이다. 바이다와 라파포트(Vayda & Rappaport 1968)는 스투어드의 결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표본 추출과정이 그릇된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제거할 만큼 적절하지 못하여 환경의 특성이 문화의 특성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문화핵심을 마치 기술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점, 끝으로 문화와 생물사이, 유전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다. 그래서 이들은 생물학의 분야인 생물생태학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환경의 문제, 사회적 구속력,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대한 과거의 해결책을 광범위한 인간의 반응체계로 연구하고자 한다(Moran 1979 : 53). 즉 환경의 문제에 관련해서 인간의 반응에 대한 관심은 적응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그러나 문화생태학에서와는 달리 문화적 적응 뿐만 아니라 생리적 행태적 적응까지 포함하는 인간이 보이는 총체적인 반응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의 인간은 서식처내의 모든 생물군의 하나인 생태계의 부분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생태계는 일정 지역내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것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유기체를 포함한다. 생태계내의 에너지의 이동은 분명히 구별되는 서식처의 구조, 생물체의 다양성 그리고 물질의 주기적 이동을 밝혀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기어츠(Geertz 1968)의 인도네시아의 경제체계의 연구를 시발로 바이다(Vayda 1974)와 라파포트(Rappaport 1968)의 연구와 이들의 공동연구(Vayda & Rappaport 1968)는 이러한 체계이론의 접근 방식을 이용한 전형적인 연구의 예로 볼 수 있다. 기어츠의 연구는 스투어드의 생계와 기술에 관한 강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인도네시아의 생계활동의 유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제체계내의 과정과 어떻게 여러 부분들이 통합된 전체를 형성하

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침체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다의 연구(1976)는 뉴기니아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인구의 변동이나 인간 대 자원의 비에 있어서의 변화와 상이한 고산족들의 농경지와 돼지에 대한 경쟁과 관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라파포트(1968)는 뉴기니아의 고산족의 조상의례가 환경의 문제나 자원분배의 문제, 인구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인간집단이 그들의 환경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내에서 균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역할만을 행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전략과 이에 따르는 생태계자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결점을 지니게 된다.

## IV. 적응양식으로서의 제주문화

### 1. 도서생태계의 특성과 제주환경

도서 혹은 섬(islands)<sup>6)</sup>은 대양이나 호소 또는 대하 등의 수역에 둘러싸여 그 밖의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대륙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육지의 일부를 가리킨다.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 이상의 큰 육지를 대륙이라고 부르고 그린랜드 이하의 큰 육지를 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각각의 섬들은 그린랜드나 뉴기니아와 같이 거대한 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류의 미세한 생물체도 영구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단순한 바위덩어리에 이르기까지 크기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섬의 형성원인도 다양하다. 즉 지각운동에 의해서 해저의 일부가 융기하거나 해안산맥의 일부가 침수하여 높은 부분이 해수면위로 남겨지거나 또는 육지의 일부가 침강하여 그 곳으로 해수가 침입하는 등의 현상으로 섬이 형성된다. 이 밖에도 해저화산이 해면위로 분출하여 이루어진 하와이제도나 카나리

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Vol. 17 : 173-174(동아출판사, 1989) 참고.

아제도와 같은 화산섬이 있는가 하면 해안지역의 일부가 파도나 빙하의 침식을 받아서 육지에서 분리되어 섬으로 남게된 노르웨이의 로포튼제도와 같은 섬들이 있다. 또 토사가 해안이나 강가운데 퇴적하여 낮은 모래로된 섬, 산호초가 해수면위로 자라서 된 산호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형성원인들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이루어진 섬들도 있다.

각각의 섬들은 그 형성원인에 있어서도 이처럼 다양하지만 규모, 격리도, 기후, 자원 등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서 도서생태계의 일반적 특성을 밝혀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서생태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규모의 도서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작은 섬의 경우에 도서내의 물질의 순환관계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태평양상의 작은 도서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Fosberg 1963)에 근거하여 도서 생태계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도서생태계

도서생태계(Fosberg 1963: 1-6)는 도서성의 두가지 속성인 상대적인 고립과 한정된 규모의 영토와 관련되어 그 밖의 생태계와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고립은 외부지역과의 교류에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외부의 경쟁으로 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게 되며 각각의 도서가 결국 원형이거나 적응력이 불안정한 생물체를 간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고립이 깨어졌을 경우 이러한 생태계는 수용력의 한계와 약화된 적응력에 의해 극단적인 취약성을 보이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쉽게 균형상태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큰 혼란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영토의 한계로 인한 도서의 협소성은 도서내의 자원의 한계에 따라 유기체의 다양성의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종간의 경쟁은 극도로 약화되기 쉽다. 동식물군의 다양성은 섬의 규모나 위치에 따른 기후나 그밖의 지질의 요인 등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도서일수록 완충효과를 결여하게 되고 조그만 변화에도 생태계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서인 경우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비교적 느린 변화를 맞았으나 인간의 개입 이후에 불안정이 크게 증가하고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인다.

기후에 있어서도 도서지역은 대륙의 기후와 몇가지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기온의 日變化와 年變化에서 볼 수 있다. 해양성 기후에 있는 도서지역에서는 기온변화의 교차가 적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의 기온의 차이나 일, 연 변화가 육지보다 적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섬지역은 일반적으로 습하며 따라서 흐린 날이 많고 우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도서지역의 기후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빈번히 부는 세찬 바람이다. 섬과 해안에는 연중 바람이 많고 또 강하여 최대 풍속은 40m/sec 이상이 된다”.

동식물군에서도 도서지역은 도서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식생의 경우 면적이 큰 대륙도의 식물상은 대륙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작은 대륙도나 해양도의 식물상에는 각각의 섬의 특징을 반영하는 식생을 각각의 도서가 지니게 되는데 대체로 낮은 섬들에서 보다 높은 지형의 섬들에서 보다 풍부한 식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섬의 동물들의 경우도 외부지역과 오랫동안 격리되어 생활함으로써 도서지역에 특유한 종류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섬동물은 원래 대륙에서 건너온 것들이나 도서환경에 적응해 오는 동안 특수한 형태로 진화되어 남아 있게 된다.

## 2) 제주도의 생태적 환경

제주도는 환경적 특성으로 한반도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도서의 하나로서 도서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도서생태계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 섬은 한반도의 서남해상에 위치한 한반도의 최대의 섬으로(총면적 1820km<sup>2</sup>) 북쪽으로 목포와는 142km, 동북쪽으로 부산과 일본의 대마도와는 274km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제주도는 섬 중앙에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1950m)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반도 최남단의 온화한 기후적 조건과 어울려 고도에 따른 다양한 식생의 분포를 보이는 지역이다.

기후는 한반도의 그밖의 지역과 같이 몬순기후 지대에 속하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연평균기온이 14.7℃로서 국내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특성으로서 이 섬에도 바람이 많고 강하여 평균 풍속 4.8m/sec를 기록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심하게 불어서 풍속이 10m/

7) 기후 부분은 학원사간 《세계대백과사전》 Vol. 8 : 568-569 (1970) 참고.

## 환경과 제주문화

sec가 넘을 때가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하계절에 복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빈번히 내습하는 태풍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이다. 강우량도 국내 최대 다우지역에 속한다(1,600~2,000mm).

주요 자연자원은 해저자원과 육상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저자원으로는 제1종 공동어장의 연체류, 해조류와 패류 등의 수산자원과 황금어장을 이루는 근해의 각종 어류 등의 수산자원을 들 수 있으며 육상자원은 주로 토지자원으로 고도에 따라 달리 이용되는 농경지, 목초지, 산림지로 구분된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농경지는 화산회토로 육지부의 답작지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위 생산성을 보이는 전작지대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산도로의 수려한 제주도의 경관은 근래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제주발전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제주개발도 이러한 자연경관을 자원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3) 환경으로서의 사회

제주사회와 문화를 고려할 때 우선 의식해야 할 점은 외부지역과 원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제주사회는 일찍부터 한반도의 국가체제의 하부지역으로 편제되어 복합사회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인 것이다. 제주사회의 고립성을 논의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제주도는 절해고도가 아니라 한반도 남단과는 가시적 거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주지역이 갖는 외부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한반도내에서 정치적 변란이나 자연적인 재해에 처했을 때 인구이주의 유인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주 선주민은 일찍부터 한반도로부터 이주해와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가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가 누적되어 제주선주민 문화의 정체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분명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sup>8)</sup>

제주도의 역사는 더욱 분명히 한반도의 국가조직체로의 통합의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조에 이르러 제주사회는 조정의 중앙집권화 시책에 따라 이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해오던 자치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의 통치력에 흡수

8) 여기에 관한 자료의 해석은 이청규교수의 여러편의 글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간략한 요약은 이기욱 외의 연구(1990)에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참고바람.

되었다. 이후의 오백여년간의 긴 세월에 걸친 조선조의 통치의 역사는 제주문화의 기본적 골격을 한국문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거의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제주도 주민들이 적응해나가야 하는 절박한 구속요인이 되어 왔으며, 제도적인 구속요인은 자연환경이 가하는 구속요인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며 제주인의 독특한 행위유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적응전략으로서의 제주문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같은 상이한 두 종류의 환경이 제기한 구속요인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적응양식으로서의 문화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베네트는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인간은 자연속에서의 주요한 생태적인 힘으로 머물러 왔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Bennett 1976 : 17-18). 그는 생태학의 개념속에 인간의 환경, 즉 사회를 자연환경과 대등하게 다루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 2. 적응양식으로서의 도서문화의 특성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환경적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술적 요인이나 가용자원의 종류나 질, 그리고 자원이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이념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문화는 형성된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무수히 많은 도서 중의 하나로 도서지역이 공통적으로 갖는 도서성(insularity : Fosberg 1963)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환경의 구속력인 이러한 도서성에 대처하는 과정에 생성된 문화라는 뜻에서 제주문화는 도서문화적 특성을 띄게 된다. 이 도서성은 다시 두 가지의 속성인 고립(isolation)과 한정된 영토(limited territory), 즉 지역적 협소성으로 구분된다.

해수로 인한 외부지역으로부터의 고립은 기술이 단순한 수준에 있는 사회일 수록 외부지역과의 물자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주민들의 지역자원 이용이나 기존에 이입된 문화에의 의존을 심화시킨다.

또한 해수로 인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적인 경계와 경계내의 한정된 토지는 자원의 한계를 뜻하게 되는데 한계자원에서의 적응전략은 독특한 문화요소의 생성을 가능케 한다. 특히 제주도의 가용자원의 속성과 이것을 이용

## 환경과 제주문화

하는 상이한 생산양식은 육지부 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제주문화의 형성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원의 한계는 도서인구의 분산과 인구규모에 영향을 주는 구속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들과 관련된 문화특질의 형성에 관련될 수 있다. 주로 태평양의 도서지역에서 연구된 몇가지 사례들은 제주문화의 도서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예가 되리라고 본다.

버드셀(Birdsell 1957)은 연구결과에서 단순한 원시농경기술을 갖고 있는 도서에서 추가의 토지와 자원을 계속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 인구는 각 세대에서 배가될 수 있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자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에 인구의 증가추세는 중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구증가는 도서내의 식량자원이 현저하게 억압적 효과를 발휘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구가 가용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에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관행이 나타난다. 약초를 이용하거나 맛짜지, 혹은 격렬한 신체운동을 통한 낙태기술, 하와이와 소사이어티 그룹의 섬들에서 행하는 영아살해의 관행(Danielsson 1956), 대가족에서 장남 이외의 남아에게 독신생활을 강요하는 관행, 남여의 성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금기사항들, 젊은이들이 행하는 치명적인 원거리항해의 관행, 추방과 전쟁(Firth 1936) 등은 모두 인구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해냄으로서 집단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적응전략의 소산이다.

한계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식은 생산조직이나 생산기술에의 향상을 이루게 하며 이것도 문화특질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도서내의 주요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것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관행들, 이와 관련된 노동조직의 형태, 생산물의 분배의 양식 등은 자원이용과 관련된 문화적 특질의 예들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폴리네시아지역에서 보이는 지주계급들이 갖는 비단계성의 친족원리, 양자채택의 관습들(Firth 1957)은 가용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을 자유롭게함으로써 한시적인 수확시기를 갖는 희소자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관행들이다.

한정된 영토내에서의 자원의 한계는 물론 자원을 이용하는 집단의 능력 한계와 더불어 인구증가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특한 문화특질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인근 소규모 도서에서 보이는 외부인의 지역자원 이용을 거부하

는 까다로운 전입절차나 해산물 채취에 전념하는 여성들이 외부지역으로 혼인할 경우 혼인하는 그날로 자원이용권을 박탈하는 관행은 한계자원에 의존하는 인구수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채택되고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이기욱 1984).

도시문화란 원래 외부지역에서 이주된 문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한 문화가 상이한 도시환경으로 이전될 때 다시 말하자면 원래의 문화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될 때 이주된 문화는 새로운 서식처의 구속력을 대처해 나가기에 용이한 형태로 변모해 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문화와 구별 가능한 문화의 특질들의 복합양상을 우리는 도시문화라 할 수 있다. 도시문화의 원문화가 도시로 이입된 문화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입된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이 원문화는 도시민들이 대처해 나가야 하는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환경이며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양식도 도시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인들이 대처해 나가야 했던 사회적 환경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조직으로 오늘날의 한국사회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제주사회는 고립된 원시적 사회와는 달리 일찍부터 복합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제주인의 일상생활의 모든 규범들 이를테면, 주민들의 신분, 관혼상제 등의 家禮, 신앙체계의 일반 원리는 물론,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식, 심지어는 교육방식까지도 모두 한반도내의 전 지역사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한반도의 법체제의 통제하에 형성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문화 항목에 변이로 간주될 수 있는 문화요소들, 이를테면 한국 문화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속유형 중에 균분제적 재산 및 제사의 상속유형, 한국의 전통가족인 대가족에 대조되는 핵가족의 유형, 그리고 성별분업의 형태에서 가계경제의 운영에서 여성이 보이는 주도적인 역할 등은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며 이들은 도시환경에의 적응양식의 하나로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 제주문화의 정체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와 환경에 관련된 여러가지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특히



생태인류학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제주문화가 환경적 특성과 연관하여 문화적 특성을 형성해온 것으로 보이나 환경과 문화와의 관계의 설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바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화형성에 있어서의 환경의 역할은 총체적인 체계, 베네트의 견해로는 사회자연체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이며 환경자체도 기술의 수준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는 변수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제주라는 총체적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역어내는 긴밀한 상호작용과 무엇보다도 이들 요소들중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가 행하는 문화창출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점은 제주사회가 직면해 왔던 사회환경에 대한 고찰이다. 제주의 도서적 성격을 중요시한 나머지 한반도 문화속에서의 제주문화의 위치를 규명하는 작업을 상대적으로 경시해 옴으로써 제주문화의 이질성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제주문화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비교문화적이거나 과학적인,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제주문화는 한반도로부터 이입되거나 이주해온 문화가 도서적 환경에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밝혀냄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 규명의 새 국면을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의 이주로 전과 된 육지부의 문화나 국가조직이 강요하는 제도적인 행위유형이 제주의 도서적 환경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혹은 그대로 실시될 수 없었으므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오늘날과 같은 독특한 문화특질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재기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정체 규명의 작업은 용이해지리라 보고 있다.

도서문화로서의 제주문화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의 하나로 한국내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전제로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도서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도서마다 보여주는 독특한 행위유형을 형성하는데 관련된 주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도서자원의 특성과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상이한 생산양식으로 보인다. 어로작업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갯벌을 이용하는 조개잡이가 지배적인 노동형태가 되고 있는 도서가 있는가 하

면 제주도와 같이 해조류나 패류를 채포하는 포작이나 잠수작업이 지배적인 곳도 있다.

생산양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주생계활동은 농업이었다. 이렇게 생계농업에 주식을 의존하는 현상은 제주도나 그 밖의 도서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제주도의 경우 자연자원의 특성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실시하면서도 해산물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잠수업이나 남성들의 어업, 그리고 목초지대를 이용하는 목축업을 아울러 행하는 복합적인 생계활동을 이루어 왔다. 생계농업에 있어서도 육지부에서 미작농업이 주업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제주에서는 화전기술에 의한 잡곡재배의 전작농업이 주업을 이루어 왔다. 토질의 차이나 여기서의 생산량의 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농민들의 가치관을 달라지게 한다.

전작지대에다 한반도내의 가장 온화한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최대다우지대의 생태적 환경의 여건하에 제주의 농경은 여성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형태였다는 사실이 육지부의 문화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루게 한 근본적 원인으로 보인다. 제주의 전작 농업에는 잡초제거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잡초제거의 노동력을 여성들이 담당함으로써 제주농업은 육지부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남성주도의 영농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생계활동에의 참여는 제주사회 구조의 성격자체를 가부장적 육지부 사회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어서, 제주사회는 조혜정(1988)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녀간의 역할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중요시되는 평등사회의 모형을 띄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작 가능한 중산간 지대의 광활한 미개척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의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육지부에서처럼 토지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성별분업에 의한 핵가족의 형태는 복합적인 생계활동에서 효율적인 최소 노동단위였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분가원칙은 대가족에서 생겨나는 게으른 한량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리라고 보인다. 제주의 역사속에 기근을 만나 굶주려 죽는자가 속출했다는 사실들이 빈번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제주인의 의식속에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핵가족제도, 균분상속의 형태, 수누름 등의 관행은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의 전략으로 선호되어 제

## 환경과 제주문화

주문화의 특수성을 이루게했으리라 여겨진다.

농민사회에서 농민들의 일차적인 생계전략은 안전제일주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Scott 1979). 농사일의 성과는 항상 개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연현상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예기치 않게 맞게 되는 자연적인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생계유지의 안전판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각종 의례가 지켜지며 또 호혜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동조직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각 가정에서의 의례비용은 생계비를 상회할 정도가 된다. 각 마을에는 성소인 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바쳐지는 당제는 마을 사람들의 결속의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생계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의례양식도 다양하다. 해산물 채취활동과 잠수굿, 영등제, 칠머리당굿 등이 여성들의 생계활동과 관련된 의례의 형태들이다. 그 밖에 농업의례인 농포제, 재석제, 마불림제, 그리고 시만대국제 등의 의례들은 오늘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던 시절의 중요한 의례들이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사신송배의례도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사에 해로운 동물을 천적을 보호함으로써 퇴치하려는 생계전략의 하나로 지켜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이기욱 1989).

제주 전통문화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나날이 상실해가고 있다. 더 늦기전에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미비된 분야에의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주문화 연구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항원 1989 제주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용방식, 탐라문화 제5집,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기욱 1984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제주도 인근 K도를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제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 1989 제주도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 1989 제주도 사신송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 1990 한국문화속의 제주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공저), 사회발전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청규 1987 제주도 선사문화의 여러 단계 양상, 제주문화 창간호, 제주: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학우회.
- 장주근 1972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한국문화인류학 제5집,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 전경수 1986 환경과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들, 계간경향: 사상과 정책 Vol. 3 No. 2. 서울: 경향신문사.
- 1992 한국어촌의 지발전과 적용(편저), 서울: 집문당.
- 한상복·이문웅·김광억 1982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현길언 1986 제주전설과 제주사람의 삶의 양식-제주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제주문화의 재조명, 양순필외 공저, 서울: 도서출판 일념.
- Bennett, John 1976, *Ecological Transition*, London: Pergamon Press.
- Danielsson, Bengt 1956, *Love in the South Sea*, London: Allen and Unwin.
- Ellen, Roy 1982, *Environment, Subsistence and System: The Ecology of Small-scale Social 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ber, Carol R. & Melvin Ember 1977, *Cultural Anthrop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Firth, Raymond 1936, *We, The Tikopia*, London: Allen and Unwin. 1957
- Fosberg, F. R. (ed) 1963, *Me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Honolulu: Bishop Museum Press.
-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Berkley: Univ. of California

- Press.
- Godelier, Maurice 1980, *Anthropology and Economics, in People in Culture* edited by Ino Rossi , New York : J.F. Bergin Publishers Book.
- Hardesty, Donald L. 1977, *Ecological Anthropolog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Hunter, David E. and Philip Whitten (ed) 1976,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New York : Harper & Row.
- Kroeber, Alfred 1939, *Culture and Nature Area of Native North Americ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ran, Emilio F. 1979, *Human Adaptability: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Anthropology*, Scranton :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Odum, E.P. 1963, *Ec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Popkin, Samuel L. 1979, *The Rational Peasant :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ppaport Roy 1968, *Pigs for the Ancestor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ahlins, Marshall 1985, *Islands of Hist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teward, Julian H.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1974. Cultural Ecolog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 Turbull, Colin 1966, *Wayward Servants*, London : Eyere & Spottiswoode.
- Vayda, A. P. 1976 *Warfare in Ec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 Plenum.
- Vayda, A.P. & Roy A. Rappaport 1963 Island Cultures, in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F.R. Fosberg (ed).
- Vayda, Andrew & Roy Rappaport 1968, Ecology : Cultural and Non-cultural, in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ed. by James Clifton, Boston : Houghton Mifflin.
- Wedel, Waldo 1961 *Prehistoric Man On the Great Plains*, Norman : University Press of Oklahoma.